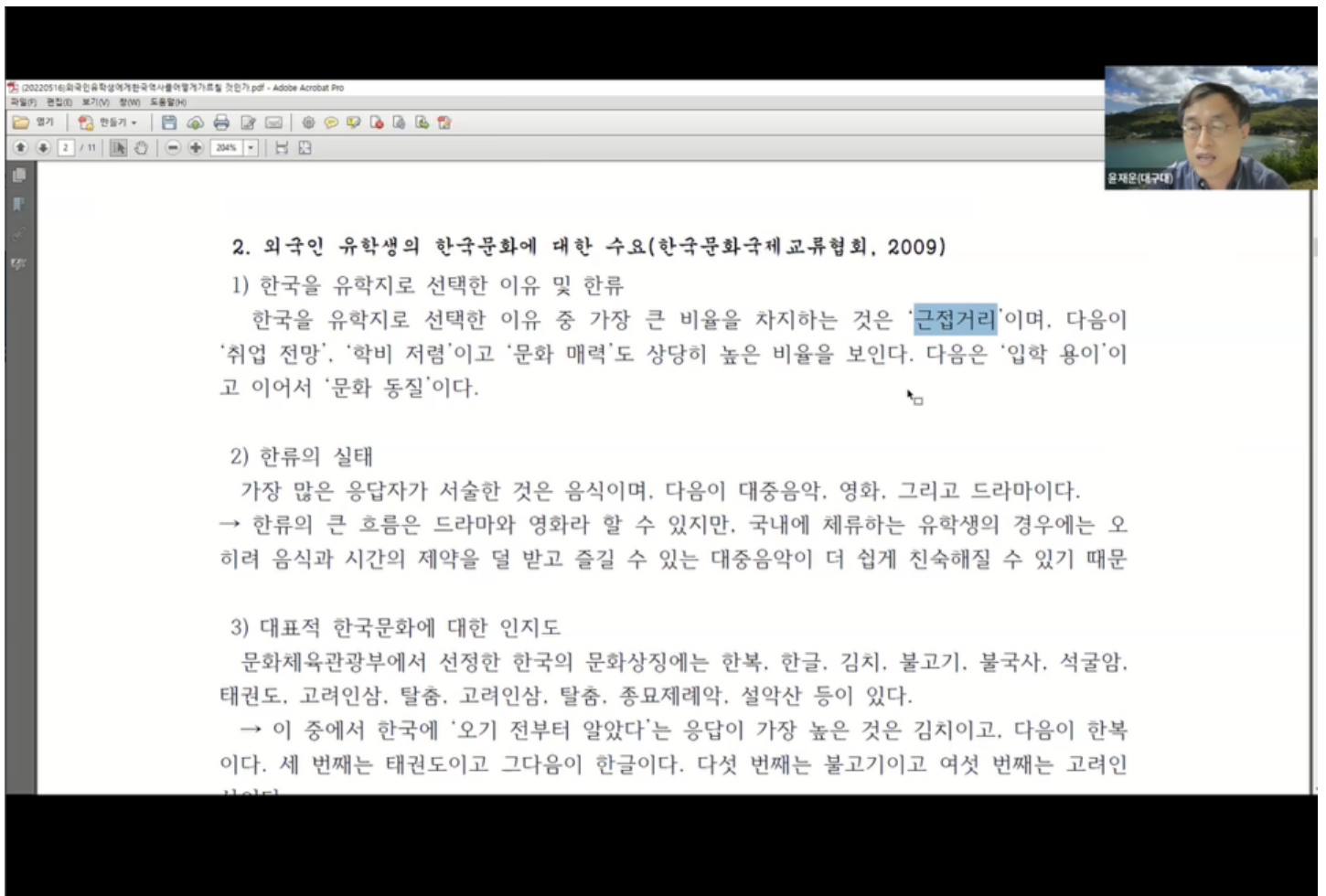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한국 역사·문학' 교수법 세미나 열어

조영은 기자 | 승인 2022.05.19 13:13



윤재운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제공)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소장 윤재운)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교수법 세미나를 16일 열었다.

세미나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초국가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학정책과 교육혁신 연구’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줌으로 열렸으며 국내를 비롯해 태국·베트남·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70여 명이 참여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윤재운 대구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 문화별 주요 관심 분야와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 등을 강연했다.

2부에서는 백순철 대구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백순철 교수는 한국 문학 교육의 현황과 내용, 방향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을 배우는 재미, 고전문학의 현대적 활용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한국 문학 교육 구성을 제시했다.

윤재운 소장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교수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은기자 cyecmu@unn.net